캄보디아 '희망 배움터'서 미래를 꿈꾸다

로터스월드, 6월 11일 리엡짜 진성초 도서관 기증식

- 진성 스님 후원으로 마련돼
- 교실 3동 등 4년 지속 지원
- 동화책 · 간식 · 학용품 선물도
- 성관 스님 "인재로 성장하길"
- 진성 스님 "전기 지원" 요청

캄보디아 시엠립=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성관 스님과 진성 스님이 새로 마련된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읽을 책을 살펴보고 있다.


6월 11일 캄보디아 리엡짜 초등학교에서 열린 '꿈과 희망의 도서관 기증식'에서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과 의령 연화사 주지 진성 스님 등 주요 내빈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스님들이 아이들에게 학용품과 간식 선물을 나눠주고 있다.



리엡짜 초등학교의 교명이 '리엡짜 진성 초등학교'로 변경됐다.

2022년, 교실 두 칸으로 시작된 진성 스님의 지원은 3년 만에 전 학년 교실을 갖춘 학교로 거듭났고, 올해는 아이들이 책을 읽고 꿈을 키울 수 있는 도서관과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를 할 수 있는 교무실까지 갖추게 됐다. 이곳은 이제 아이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오롯이 배움에 집중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교육 공간이 됐다.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는 6월 11일 캄보디아 시엠립 외곽의 리엡짜 초등학교에서 '꿈과 희망의 도서관 기증식'을 개최했다. 아침부터 내린 비로 흙길은 질퍽했지만, 중심지에서 차량으로 1시간 가까이 달려 도착한 스님들을 아이들은 박수로 환영했다. 기증식에는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과 의령 연화사 주지 진성 스님, 용인 장경사 주지 정휴 스님과 총무 혜타 스님을 비롯해 앙 삼반(Eng Samban) 시엠립 앙코르톰 구 군수, 스레이 욘(Srey Yorn) 시엠립주 앙코톰구 교육청장, 반 사벳(Von Savet) 리엡짜 초 교장, 학생, 지역주민이 함께했다.

이번에 문을 연 도서관과 교무실은 진성 스님의 후원으로 조성됐다. 진성 스님이 리엡짜 초등학교를 지원한 건 2022년부터. 당시 부족한 교실과 노후화된 시설에서 공부하던 아이들의 사연을 접한 스님은 첫해에 교실 2칸 규모의 교육관을 지었고, 이듬해에는 교실 1동과 놀이시설을 추가로 마련했다. 그럼에도 고학년 학생들은 여전히 낡은 건물에서 수업해야 했기에 스님은 지난해 세 번째 교육관을 완공, 전 학년 학생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교육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되자 학생 수도 크게 늘었다. 100여 명이던 재학생은 현재 181명까지 증가했다. 이에 진성 스님은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도서관 건립을 결심했고, 올해 4월 착공해 두 달 만인 6월 11일 완공했다.

이날 스님의 뜻깊은 후원에 공감한 북한산 영취사가 도서관에 비치할 어린이용 동화책을, 도반인 장경사가 간식과 학용품을 선물했다. 특히 교명도 '리엡짜 진성 초등학교'로 변경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 같은 진성 스님의 지원은 지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스님은 2차 지원 당시 시엠립 교육부 측에 학교로 연결되는 비포장도로 개선을 요청했고, 최근 도로포장이 완료되면서 공사 장비 유입이 쉬워졌고 주민 생활 편의도 높아졌다.

진성 스님은 "캄보디아 아이들의 교육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인연을 맺어준 로터스월드에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해 캄보디아의 미래를 이끌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은 진성 스님의 후원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시골에서 차도 없이 사찰을 운영하는 스님께서 지어주신 이 공간은 그 어떤 고층 건물보다도 값지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없는 전생과 금생을 거쳐 어머니, 아버지, 형제였을 수 있는 인연들이 모여 오늘의 거룩한 자리가 만들어졌다"며 인연의 소중함을 전했다.

또 성관 스님은 어려운 환경을 딛고 꿈을 이룬 이재명 대통령의 일화를 들려주며 "이곳 리엡짜 초등학교 학생들도 언젠가 세상의 빛이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스님이 아이들에게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아이들은 힘찬 목소리로 "할 수 있다!"고 외쳤다.

캄보디아 지역 인사들도 한국 불교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전했다.

앙 삼반 앙코르톰구 군수는 "앙코르톰 지역의 공무원과 마을 주민, 학생들을 대표해, 이 지역 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로터스월드와 진성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새로 지어진 도서관과 교무실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다. 아이들이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좋은 아이, 좋은 학생, 그리고 좋은 친구로 자라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 사벳 교장도 "진성 스님의 꾸준한 후원 덕분에 열악했던 우리 학교가 이제는 세 개의 교사동, 여섯 개의 교실, 놀이시설과 도서관까지 갖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으로 탈바꿈했다"며 "지금까지 지원해 주신 모든 시설과 물품들을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소중히 사용하며 오래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

학생들을 대표해 4학년에 재학 중인 찌아스 꼬랍 학생은 감사 편지를 낭독했다. "진성 스님 덕분에 지난 4년간 우리학교는 활기차졌으며 학교에 올 때마다 더 많은 설렘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번 지원해 준 도서관에서도 친구들과 책을 읽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오랫동안 저희의 성장과 행복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학교를 잘 관리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멋진 학생이 되겠습니다."

행사는 도서관·교무실 준공을 기념한 테이프 커팅과 제막식, 기증 증서 전달식, 도서관 내부 점검 순으로 마무리됐다. 도서관을 둘러본 진성 스님은 교장에게 향후 어떤 도움이 더 필요한지 물었고, 교장은 내년부터 유치원 운영을 계획하고 있지만 교실이 부족해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진성 스님은 "저도 다시 한번 마음을 내보겠다. 대신 정부에서도 학교에 전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길 기원한다"고 요청하며 내년을 기약했다.

"느리지만 꾸준히 교육불사 이어갈 것"

인터뷰 의령 연화사 주지 진성 스님


បឋមសិក្សា លៀបចាស់ ឈឺនសង់
លៀបចាស់ ជីនសង់
លៀបចាស់ ជីនសង់
រៀបចាស់ ជីនសង់
លៀបចាស់ ជីនសង់
លៀបចាស់ ជីនសង់
ល